



V리그를 빛낸 세얼굴. 11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2014~2015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가 열렸다. 이번 신인 드래프트엔 남자부 42명이 참가해 28명이 지명을 받았고 여자부에선 46명이 참가해 18명이 지명을 받았다. 새로 프로선수가 된 남자선수들(왼쪽)과 여자 선수들이 꽃다발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리베로가 가장 먼저 뽑혔고 쌍둥이 자매는 적이 되었다

2014~2015 V리그 남녀 신인 드래프트

남자부 리베로 오재성, 전체 1순위로 한전행 여자부선 이재영·이다영 자매 전체 1·2순위
조선족 출신 이영, 귀화 조건으로 GS 유니폼

남자부 28명·여자부 18명 취업률 67% 기록

V리그의 미래를 이끌 2014~2015 KOVO(한국배구연맹) 신인선수 드래프트가 11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벌어졌다. 남자부 대학, 교교 졸업 예정자와 재학생 등 42명 여자부 고교졸업 예정자 46명이 참가했다.

●이번 없었던 남녀부 신인지명 1라운드

대어가 많이 나왔다는 여자부 1라운드는 50%~35%~15%의 확률추첨이 변수가 되지 못했다. 지난시즌 성적 역순으로 1~3위가 결정됐다.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선명여고 레프트 이재영을 전체 1순위로 찍었다. “우리 세트 조송화를 믿었다. 이재영이 공격과 수비능력 모두를 갖춰 현재 우리의 전력으로 본다면 이재영”이라고 했다. 레프트 신인경이 부상으로 시즌 출

전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지금 당장의 성적, 현대건설의 견제까지 고려한 선택이었다. 2순위 현대건설 양철호 감독은 선명여고 세터 이다영을 찍었다. “우리로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좋았다”고 했다. 3순위 도로공사 하중화 전 현대캐피탈 감독의 딸 하혜진을 선택하면서 진주 선명여고는 1~3순위 선수를 모두 배출했다. 국가대표 선수로 AVC컵 대회에 참가중이어서 드래프트 현장에 참가하지 못한 이다영 이재영 자매는 88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 세터 김경희 씨와 육상 국가대표 출신 이주형 감독의 쌍둥이 딸이다.

●여자부 최대 화제는 GS 이영 귀화

KOVO는 여자부 드래프트 행사에 앞서 참가 구단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조선족 출신 이영(강릉여고)의 귀화와 관련해 각 구단의 서면동의를 또다시 확인했다. 이영은 중국 연길 출신으로 4년 전 한국에서 배구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공무원 아버지와 대학교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은 V리그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국적이 필요했다. 강릉여고 김경수 총감독은 이영을 수양딸로 귀화시켜서 드래프트에 참가시켰다. 8월 법무부에 귀화신청을 했다. KOVO는 “귀화를 전제조건으로 신인

지명을 할 수 있으며 귀화가 되지 않으면 드래프트 권리를 잃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난 시즌 우승으로 6순위 지명권을 준 GS는 이영을 선택했다. 김용희 사무국장은 “지난해부터는 여자 본 선수였다”고 했다. 이영은 “배구가 좋았고 한국이 정이 갔다.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태극마크를 달고 뭘 뭘 시원하게 은퇴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남자부 최대 화제는 전체 1순위 리베로 선발

전체 1순위 선택권을 준 한국전력 신영철 감독은 뒤도 보지 않고 성공관대 리베로 오재성을 선택했다.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전체 1순위에서 리베로가 지명됐다. 이어 OK저축은행(인하대 세터 박원빈)~LIG 손해보험(성균관대 세터 노재욱)~우리카드(성균관대 세터 구도현)~대한항공(인하대 세터 황승빈)~현대캐피탈(한양대 세터 이승원)~삼성화재(경기대 세터 이민욱) 순으로 지명을 받았다. 이민욱은 OK저축은행이 민간의 동생으로 대학 2학년이지만 신인 드래프트를 신청해 형제가 프로무대에서 활약하게 됐다.

1라운드에서는 리베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터와 세터였다. 각 구단의 필요 포지션이

●남자부 신인드래프트 결과

지명순위/팀	한국전력	OK저축은행	LIG손해보험	우리카드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1R	①오재성	②박원빈	③노재욱	④구도현	⑤황승빈	⑥이승원	⑦이민욱
2R	⑧권진호	⑨전병선	⑩김민규	⑪이동석	⑫정바다	⑬진성대	⑭우상조
3R	⑮라광균	16 김기명	17 최돈선	18 조진구	통과	20 소인섭	21 이태호
4R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통과	22 안정경
수련선수	정주형	강현수/함용빈	이한호	황중호	신희섭	통과	정진규

※ 동그라미 안의 숫자는 전체 지명 순위

●여자부 신인드래프트 결과

지명순위/팀	흥국생명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	KGC인삼공사	IBK기업은행	GS칼텍스
1R	①이재영	②이다영	③하혜진	④문명화	⑤전세안	⑥이영
2R	⑦정유리	⑧박혜미	⑨김예지	통과	⑩김하경	⑪정다운
3R	⑫강혜수	⑬김태희	통과	통과	통과	통과
4R	통과	통과	통과	통과	20 권혜림	19 정서연
수련선수	김도희	통과	김혜원	통과	강다영	통과

었다. 김상우 감독이 지휘하는 성공관대는 1,3,4순위를 선택받는 등 5명 모두를 프로에 보내 100% 취업률을 기록했다. 유일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영생고 세터 소인섭은 3라운드에서 현대캐피탈의 지명을 받아 프로의 꿈을 이뤘다.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일찍 프로무대를 노크했는데 “입단 계약금은 부모님 집 사는데 보태

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여자부는 전체 46명의 드래프트 참석자 가운데 18명이 지명을 받아 33%의 취업률을 보였고 남자부는 전체 42명 가운데 28명이 취업에 성공해 67%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김종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트위터@kimjongkeon

하나·외환챔피언십 막차 탈 국내파 2명은 누구?

〈국내서 열리는 유일한 美 LPGA 투어 대회〉

총상금 20억원을 놓고 펼쳐지는 ‘별들의 전쟁’ 하나·외환챔피언십(총상금 200만달러)에 초대받을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될까.

10월 9일부터 4일간 인천 영종도 스카이어72 골프장에서 열리는 하나·외환챔피언십은 국내서 열리는 유일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다. 초대받은 78명만 출전할 수 있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는 모두 12장의 티켓이 배정됐다. 최종 명단은

14일 끝나는 YTN-볼빅 여자오픈(총상금 5억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KLPGA 투어 상금랭킹 1위부터 12위에게 출전자격이 주어진다.

11일 현재 12명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 상금랭킹 1위 김효주(19·8억1006만원)부터 10위 김하늘(26·2억9150만원)은 출전을 확정지었다. 11위 장수연(20·하이마트)과 12위 윤슬아(28·파인테크닉스)는 13위 조윤지(24), 14위 김민선(19·CJ오쇼핑)과 마지막 순위 다

름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장수연과 윤슬아가 티켓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수연은 2억6690만원, 윤슬아는 2억6102만원의 상금을 받아 조윤지(1억8158만원), 김민선(1억7092만원)에 크게 앞서있다. 조윤지와 김민선은 YTN-볼빅여자오픈에서 반드시 우승해야 출전권을 기대할 수 있다. 우승하더라도 장수연과 윤슬아의 성적을 따져봐야 한다. 우승 상금은 1억원, 준

우승 상금은 5750만원이 걸려있다.

하나·외환챔피언십은 한국선수들에게는 ‘기회의 무대’다. 우승상금 30만달러(약 3억1000만원)와 함께 우승자에게는 LPGA 투어에서 뛸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안시현(2003년)과 이지영(2005년), 홍진주(2006년)는 이 대회에서 우승해 LPGA 투어 진출에 성공했다. 올해도 국내파 12명은 신데렐라가 될 꿈을 꾸고 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문체부, 농어촌·도서지역 아동 대상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운행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농어촌, 도서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스포츠버스’(Sports Bus)를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포츠버스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수와 임직원의 급여 1%씩을 모아 적립한 기금으로 구입한 버스 2대를 국민생활체육회에 기증하면서 마련됐다. 스포츠버스는 닌텐도 등을 이용한 체력존과 체력측정존, 디지털 전시존을 갖추고 있어 ‘움직이는 체육관’으로 손색이 없다.

문체부는 또 스포츠버스에 다양한 운동용품과 신국 도서시간과 오지 초등학교를 찾아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은 운동회’를 월 2회씩 열 계획이다. 첫 행사로 12일 오후 1시 인천 강화군 대월초등학교에서 지역 주민, 교사, 학생 100여명이 참가하는 작은 운동회가 펼쳐진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스포츠버스를 확대해 소외계층과 농어촌, 도서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 열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은 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단 전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결의대회에는 김상홍 교수(전 단국대 부총장)가 초빙돼 청렴강의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역사 속에서 살펴본 청렴과 공직윤리’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다.

프랑스, 스페인 꺾고 60년 만에 농구월드컵 4강 진출
프랑스가 11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4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월드컵 8강전에서 개최국 스페인을 65-52로 꺾었다. 프랑스가 농구월드컵(구 세계 농구선수권대회) 4강에 진출한 것은 1954년 브라질에서 열린 제2회 대회 이후 무려 60년 만이다. 세르비아도 브라질을 84-56으로 꺾고 준결승에 합류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트위터@mkh2357

홀로 남은 이정환, 만리장성 넘을 카드는?

■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즌2 8강전

한국선수론 유일 생존…中 정구오이 경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전략 카드게임 ‘하스스톤’의 한국과 중국 통합 최강자를 가리는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시즌2가 8강을 앞두고 있다. 16강에선 한국 선수 1명과 중국 선수 7명이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유일한 8강 진출 한국 선수인 이정환(22·골든코인·사진)이 중국 만리장성의 기세를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강전은 15·16일 용산 e스포

츠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정환 몰아치는 공격 강점

이정환은 과거 ‘GSL’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스타크래프트2’ 선수였다. ‘하스스톤’으로 종목을 변경한 뒤에도 클랜 대회 준우승 등 호성적을 거두며 활발히 활동해 온 기대주다. 특히 중국의 권위 있는 대회인 WEC(World E-Sport Championship)에서 ‘하스스톤’ 종목 한국대표 선수로 나서서 등 증명된 실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 선수들에게는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환의 장기는 특유의 몰아치는 공격이다. 16강에서도 이러한 강점을 십분 발휘해 눈길을 끌었다. 이정환의 16강 상대는 이미 ‘2014 블리즈컨 월드 챔피언십’ 진출을 확정지은 강자 왕지아후이였다. 이정환은 첫 세트에서 평소 가장 자신 있다고 밝힌 ‘방밀전사 맥(카드 모음)’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고, 이후에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며 상대를 압박해 3대2로 8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다만 이정환은 16강에서 잔 실수가 있었다고 밝혀 침착한 플레이를 하는 것이 4강 진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학교대학 선수권대회에 이은 전국의 유망주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대회다. 전국에서 남고부 13개 학교, 여고 14개, 남중 22개, 여중 18개 학교 등 총 67개 팀이 참가한다. A팀, B팀으로 선수들을 나눠 참가할 수 있는 다른 대회와 달리 한 학

●정구오이 경계 대상 1호

그렇다면 이정환이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경계해야 할 중국 선수는 누가 있을까. 8강에 진출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강력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지난 시즌 우승자이자 이번 시즌 역시 중국 대표 1위로 나선 정구오이다.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 빈틈을 주지 않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 장이다. 특히 16강에서 ‘낙스라마스’ 업데이트 이후 추가된 카드까지 섞어가며 더욱 독특하고 위력적인 ‘돌전사냥꾼 맥’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한편, 이번 시즌 결승은 30일 용산 e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서틀룩 꿈나무들 제주도 모인다

14일부터 가을철 중·고 배드민턴선수권

전국 서틀룩 꿈나무들이 제주도에 모두 모여 2014년 열린 값진 땅의 결실을 맺는다. 2014 전국가을철 중·고 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북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봄철 종별 선수권대회, 여름철 종별 선수권